

2026년 전국체육대회 제주에서 열린다

대한체육회, 어제 제107회 대회 개최지 제주 확정
1998년 첫 개최 후 2002년·2012년에 이어 네 번째

제주에서 네 번째 전국체육대회 개최된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갖고 2026년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개최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대회 승인조건 및 제 규정 준수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제주는 이로써 1998년(제79회) 첫 개최를 시작으로 2002년(제83회), 2014년

(제95회)에 이서 네 번째 개최하게 된다. 첫 개최이후 12년 주기로 대회를 치르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지난 9월 오영훈 지사의 강력한 유치 의지에 따라 도체육회와 행정이 모여 3차례의 협의회를 거쳐 대회 유치신청을 결정했다. 제주도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기능 보강 및 확충, 이를 통한 동북아 전지훈련기지 기반 마련 등을 대회 유치 목적이라고

신청서에 밝혔다.

특히 종합경기장 등 메인스타디움 운영에 있어 제주월드컵경기장과 강정종합경기장을 활용한 개·폐회식 운영 등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도 전역의 경기장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앞서 열린 세 차례의 대회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대회개최로 종목별 전력 극대화 등을 통한 엘리트 체육 성적 향상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되면 서 같은 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그 다음해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단위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따라서 대회 준비 과정에서 체육 시설 환경을 정비하고 대회 개최와 동북아 중심의 전지훈련 기지 기반을 마련해 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제주 전국체전 백서에 따르면 당시 대회 개최로 생산유발효과 190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34억원, 고용유발효과 3023명 등의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조상윤기자 halla21@halla.com

'트윈타워' 임동혁·송주훈 제주Utd 복귀 압도적 피지컬로 제공권·세트피스 장악 기대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공수 팔방미인 임동혁(29)과 중앙수비수 송주훈(28)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귀했다고 26일 밝혔다.

임동혁은 2020년 부천FC1995를 떠나 제주에 입단했다. 입단 첫 해 K리그2 무대에서 16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하며 제주의 K리그2 정상 등극에 기여했다. 특히 팀 전술 변화에 따라 본포지션인 중앙수비수가 아닌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맹활약하며 '슈트라이커'라는 새로운 애칭을 얻기도 했다.

2021시즌을 앞두고 군입대를 결정한 임동혁은 K4리그 포천시민축구단에 입단했으며 2022시즌에는 포천시민축구단이 K3리그로 승격하면서 K4리그 신생팀은 고양KH 축구단으로 이적했다. 임동혁은 190cm에 86kg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023시즌에도 제주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주훈은 2021시즌 중국 슈퍼리그 선전 FC를 떠나 제주에 합류했다. 송주훈은 각급 연령별 대표팀과 A대표팀을 거친 수준급 수비수이다. 2013년 터키 U-20 FIFA 월드컵 8강 진출의 주역이다. 2016년 리우올림픽은 아쉽게도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2017년 10월 모로코전



임동혁(왼쪽)과 송주훈.

에서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190cm, 83kg의 상대적 우위의 피지컬뿐만 아니라 왼발 빌드업이 뛰어나 기대감을 모았지만 아쉽게도 부상으로 제주 합류 후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2021년 6월 21일 병역 의무를 위해 김천 상무로 적을 옮긴 송주훈은 서서히 컨디션과 기량을 회복했다. 2022시즌 승강 PO포함 K리그1에서 18경기에 출전했다.

최근 K리그 정상급 수비수 연계를 영입했던 제주는 이들의 복귀로 중앙 수비라인이 더욱 두터워졌다. 임동혁과 송주훈은 타점 높은 헤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수비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장면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남기일 감독 역시 "힘과 높이를 갖춘 선수들이다. 공수에 걸쳐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조상윤기자

국제축구사통계연맹 올해 최우수 선수·감독 선정 손흥민 아시아 유일... 벤투도 후보 포함

한국 축구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국제축구사통계연맹(IFFHS) 선정 올해의 최우수 감독과 선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IFFHS가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로 발표한 2022 남자 국가대표팀 최우수 감독 후보 20명에 포함됐다.

IFFHS는 매년 최고의 국가대표팀 감독과 클럽 감독, 선수 등을 선정하는데, 그에 앞서 후보를 겸한 '톱20'이 먼저 발표됐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 팀인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 준우승팀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감독 등과 함께 20명 안에 들었다.

앞서 발표된 올해의 남자 최우수 선수 후보 20인에는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남자 최우수 선수 후보로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파리 생제르맹), 킬리안 음바페(프랑스·파리 생제르맹), 엘링 홀란(노르웨이·맨체스터 시티), 해리 케인(잉글랜드·토트넘) 등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올 한해도 수고 많았어요"...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및 2022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가 2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신경환과 정겨울(이상 도장애인배드민턴협회)이 오영훈 회장(제주도지사)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도장애인농구연맹이 최우수단체상을, 도장애인수영연맹과 도장애인골프협회가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농구영신' 3년 만에 컴백 31일 원주DB vs 전주KCC

프로농구의 명물 '농구영신'이 3년 만에 돌아온다. 프로농구에선 2016년부터 매년 12월 31일 늦은 밤 시작해 새해를 농구장에서 맞이하는 경기가 도입됐다. '밤 10시 경기 시작'은 4대 프로스포츠에선 처음 시도된 일이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 의미의 '송구영신(送舊迎新)'과 '농구'를 합해 '농구영신'으로 불리는 이 송년 매치는 매년 관중몰이에 성공하며 KBL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간은 열리지 못했다.

2020년과 지난해 모두 시즌 일정에 12월 31일 오후 10시 시작하는 농구영신 경기가 편성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개최가 어려워져 지난 경기와 같은 오후 7시에 열렸다.

3년 만에 마침내 다시 찾아온 농구영신은 31일 밤 10시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원주 DB와 전주 KCC의 대결로 펼쳐진다. 올해 농구영신은 현재 프로농구 최고의 스타 허웅(29·KCC)의 첫 '친정 방문'으로 특히 화제를 모은다. 연합뉴스

김주형 '첫 우승 올리고 스타 된 6명'

골프채널, 2022년 PGA 선정

김주형(20)이 미국 골프 전문 미디어 골프 채널이 선정한 2022년 PGA투어에서 '올해 첫 우승 올리고 스타 된 6명'에 이름을 올렸다.

골프 채널은 올해 PGA투어에서 첫 우승을 따낸 뒤 화려하게 떠오른 인물로 마스터스 챔피언 스코티

제플러(미국), US오픈 우승자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 3차례 메이저대회 준우승 끝에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윌 핼러토리스(미국), 세계랭킹 214위에서 27위로 상승한 제프 슈트라카(오스트리아), 206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군 루크 리스트(미국)와 함께 김주형을 꼽았다.

골프 채널은 "어떤 골프 전문가도 김주형이 혜성처럼 등장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김주형은 PGA투어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다른 선수와 달리 원팀 챔피언십 우승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골프 채널은 특히 김주형이 첫날 1번 홀 퀴드러플 보기를 하고도 우승한 일화를 다시 한번 소환했고, 프레지던트츠컵에서 스타가 됐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The Original dimchae°

전품목

위니아 덩채

할인행사

오리지널 덩채°

덩채의 오리지널 공식으로 재현한

한겨울 땅속 김치 맛



BDQ48GKPKED
실키베이지샌드(평면유리)



BDT33GLMXSS
노바실버(곡면메탈)



BDL22GEWBE
보나타베이지



BDL18GEWUSS
새틴실버

취급품목 김치냉장고 덩채° / 프리미엄 냉장고 PRAUD° / 에어콘(가정용, 업소용, 천장형) / 냉·난방기(최고엔비에너지, 히트뱅크) / 덩채° (비전기압력밥솥) / 각종 냉장고, 냉동고 / 세탁기, 건조기 / 제습기, 공기정화기

(주)위니아에이드 제주점 전시장 : 제주시 북성로 27(삼도이동) T. 721-9095~6, 755-9095, F. 755-9096